

서정성, 창작흐름 변화의 촉진제

문화특집

우리 민족이 분단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도 어느덧 반세기 가깝게 되었다. 반세기의 분단이 가져온 질서와 비움은 서로의 사회를 바라보는 데에 편견을 갖게 하였으며 선입견으로 작용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삶은 그림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50년의 세월을 인정해야만 하며 50년의 세월이 남북간에 가져온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질적인 인성을 실상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문화를 다음과 같이 시대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 ①광복 전설의 시기 문화 (1945. 8-1950. 6)
- ②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문화 (1950. 6-1953. 7)
- ③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 시기 문화 (1953. 7-1960)
- ④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시기 문화 (1961-1966)
- ⑤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화 해두는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온 사회의 주체 사회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 시기 문화 (1967-현재)

북한문학의 문예원칙과 시대적변화

북한의 현대문학은 정치체제의 변동과 맞물려 왔다. 즉, 김일성 일인제에 확립 전후의 문학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시대구분 중 ①과 ②의 시기는 사회주의 문학이론이나 작품이 확립되지 못한 혼란기에 해당하며 ③과 ④의 시기는 김일성 일인제에 확립되어 문학이론이나 작품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며 ⑤의 시기는 김일성 일인제에 확립되어 문학이론이나 작품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문예예술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문학 역시 여기에 서 벗어날 수는 없다.

첫째는 '공산주의적 당성'이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에 의

알려진 창작물 공연예술화 추세 두드러져

80년대 '교시' 이후 순수 서정문학 창작 시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학이 견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의 문학이론에 의거하여 더 나아가 "수령년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자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일컬어 '노동계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문학의 창작의 자유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문학의 창작의 자유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자(문)'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문예 창작의 방법론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시조(敍調)의 다 양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위의 같은 이론적 원리에 따라 창작되고 있는 북한문학은 다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주체의 제창성을 들 수 있다. 위의 이론적 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문학은 사조와 다양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에서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의 주요한 주제는 김 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찬양, 공 산주의 사회에 대한 찬양, 일제

군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정의의 필명을 높일 수 있는 자유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조(敍調)의 다 양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위의 같은 이론적 원리에 따라 창작되고 있는 북한문학은 다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주체의 제창성을 들 수 있다. 위의 이론적 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문학은 사조와 다양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에서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의 주요한 주제는 김 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찬양, 공 산주의 사회에 대한 찬양, 일제

군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정의의 필명을 높일 수 있는 자유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조(敍調)의 다 양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위의 같은 이론적 원리에 따라 창작되고 있는 북한문학은 다른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주체의 제창성을 들 수 있다. 위의 이론적 원리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문학은 사조와 다양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에서 창작되고 있는 작품들의 주요한 주제는 김 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찬양, 공 산주의 사회에 대한 찬양, 일제

문화단신

동구권 영화제 개최

'그림자놀이' 22일부터

서울지역 대학영화제 연석회의(이하 서대연)는 오늘날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학교별로 '동구권 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에, 서대연에 가입한 분교 영화회 '그림자 놀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등 하루 네차례에 걸쳐 플레드 작품 '파의 다이아몬드', 황가리 작품 '하얀선' 등 총 17편의 작품을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상영한다.

이번 영화제는 서대연에 소속된 각 영화회간의 연대의사를 고취하고, 아울러 동구권의 변화와 영화의상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플레드 대사관, 영화광관 '서양제'가 협력하였다.

'불어불문학' 예술제

연극제와 노래공연 마련

수원캠퍼스 불문학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불문학예술제'를 마련한다.

이번 예술제는 연극제와 노래 공연의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1일의 연극제는 이근상 원작의 '30일간의 자유'를 불어하여 공연시각각에서 오후 1시와 4시 두번 공연을 가지며 2일의 노래공연은 노래모임 '삼촌'의 '사람은 단신처럼'과 7곡과 노래모임 '라브레'의 '키작은 하늘'의 10곡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탈패 '말뚱이' 정기공연

'고성오랑대'를 임강고실시

의대 탈패 '말뚱이'가 오늘 오후 5시에 제4회 정기공연 '고성오랑대'를 임강고실에서 갖는다.

무명문화제 제7호인 고성 오랑대출은 이조 말뚱이 장남 고성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면극으로서, 말뚱이는 이번 공연을 위해 '고성 오랑대 보존회'의 허종복씨 등으로부터 일주일의 전수과정을 거쳤다.

과제중과 양반에 대한 조소와 풍자를 담고 있는 이번 오랑대 공연이 "우리것을 알리고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허종복(의대·1)장은 말했다.

죽신 '신촌불루스' 출간

대학생의 현실극복의지 다취

김범아 소설집 '신촌 불루스'가 출간에서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초를, 사회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겪은 신촌에서 대학생활 하던 젊은이들의 고뇌와 극복의지를 담고 있다.

제1회 청년심상문학상에 '불비'가 당선되면서 분단에 몰려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첫 소설집을 내었다.



정보통신은 쏟아져나오는 문자 속에서 만나는 간접화도 재미있는 그 특성상 많은 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에 본고 만화창작동아리인 '흔그림'을 이끌고 있는 현명진(생물·91)군을 만났다.

'흔'은 크다, 길다, 넓다 등의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이다. '흔그림'은 넓은 그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단다'라고 현명진은 설명하면서 만화(漫畫)를 우리말로 옮기면 '흔그림'이 된다고 한다.

입학전 만화를 즐겨보면서 직접

모방 탈피한 새로운 만화문화창조에 노력

—흔그림 회장 현명진(생물·91)군을 만나

그러보고 싶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현명진은 만화가로서는 허영 단계를, 작품으로는 이현세씨의 '해방인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활상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그려내는 것이 좋은 만화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 작가의 특수한 상상에만 국한되는 만

"좋은 만화란 생활속의 얘기를 진솔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화보다는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만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만화를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흔그림'이 화 원본만화를 읽는 지루한 호기심을 무작정 막기만 하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죠. 독자들의 요구를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시켜 줄 때만이 입양기에 성장하는 외세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기술적, 내용면에서 우리나라 만화보다 월등히 앞서있는 일본만화의 단순한 모방에서 탈피하여 만화가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는다.

공주신문에 만화예술화과가 신설되었고 '객주'를 그린 이후로 세 달, 우리것을 찾아가는 만화가

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예전에는 '민족민중 흥그림'을 내걸고 사극시장을 비껴나려는 만화를 제작하여 알려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에는 개개인이 대학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고민을 그 생활 주변의 모습들을 그려냄으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만화세계를 찾으려는 모습들이 두드러진다고



▲현명진이 책에서 그린 자화상

신간안내

호우님의 '시인의 죽음'

'시인의 죽음'이란 제목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다. 호우님은 시인의 죽음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이 소설은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초를, 사회변화의 다양한 양상을 겪은 신촌에서 대학생활 하던 젊은이들의 고뇌와 극복의지를 담고 있다.

〈점명경 회상〉

“도서관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항상 자리가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학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책과 가방이 앉아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 빈 강의실을 해매는 학우들을 위해 도서관의 좌석을 잠재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대 학 주 보 사